

Treatment of Thoracolumbar Intervertebral Disc Herniation in 94 Dogs

Yeon-jung Hong, Se-ung Jang, Sang-woo Lee, In-sung Jung*

Department of Veterinary Surgery, Royal Anim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서 론: 흉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척수강내로 탈출된 추간판 물질이 척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증상과 심도로 나타낸다. 이는 척수강내로 탈출된 추간판 물질의 양과 유입된 속도에 따라 다양한 척수 회백질의 손상와 허혈을 유발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척수의 손상은 진행된다. 흉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이러한 증상의 압박 정도와 기간, 증상의 심도, 병변 주위의 출혈, 혈종 및 변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결정되며 또한 다양한 예후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본원에 내원하여 흉요추 추간판 탈출로 진단된 94 마리 개의 분포, 진단, 치료, 예후에 대해 알아보려고 시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본원에 내원하여 흉요추 추간판 탈출로 진단된 94 마리 개의 품종, 나이, 성별, 증상 정도와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척수 조영검사를 이용한 병변의 호발부위 분포, 척수 조영 검사의 결과, 진단에 따른 치료 방법 및 이에 따른 예후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 과: 호발 품종은 연골 이형성 품종인 Pekignese, maltese, cocker spaniel순이었으며 pekignese는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에 발생하였으며 cocker spaniel은 상대적으로 심한 단계로 내원한 경우가 많았다. 품종별 호발 연령이 달랐으며 보통은 급성의 증상발현이 있었고 주로 11번 흉추에서 3번 요추부에서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였다. 진단은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척수 조영검사를 이용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려하였다. 척수 연화증으로 진단된 경우는 4마리였다. 보통 1-2단계에서는 약물과 침치료를 실시하였고, 3-4단계에서는 수술이나 약물, 침치료를 시행하였다. 수술은 총 34건 시행되어졌으며 3단계에서의 수술 치료율은 89%였으며 4단계에서의 수술치료율은 68% 였으며 이는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하여 척수 연화증 및 심한 변성의 경우 치료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임상적 의의: 본 연구는 수의임상에서 흔치 않게 접하게 되는 흉요추 추간판 탈출에 관한 국내 발생 비율 및 추세를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Corresponding author: jung4545@korea.com